

# Only when emitting Holy Dew Spirit, One can be a Prophet like Mose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The world is a mortal one. Not only humans but also all things that live die. Because from the moment Adam God and Eve God, who are the Gods of life, were taken prisoner by the devil, the world became a world of death.

**It takes 6000 years for God to make all things immortal forms**

Since God lost to the devil once, he had to wait 6,000 years. It takes 6000 years for God to change mortal existences into immortal ones. So God said that he works for 6days and takes a rest on the 7th day.

Only one matching word is that of God according to Isaiah 34:16. It says, "Look in the scroll of the LORD and read: None of these will be missing, not one will lack her mate. For it is his mouth that has given the order, and his Spirit will gather them together." So no matter how Christians read the Bible, they do not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Bible. All the words of the Bible are those of God, the word of God has all its matching words. However, there are

many words which do not have their matching word among the words of the Bible. So it is said that a word without a matching word is not that of God. But Christians do not know this. Even the pastors don't know it, and the doctors of theology don't know it either.

**Jesus did not read the verses, "Humans are the sons of God."**

He did not know which one is the word of God in the Bible. Also he did not know all humans are the children of God. According to Psalm 82:6, "You are the gods, the sons of the Most High. The Most High is God. It indicates, "You are all sons of God." according to Psalm of the Old Testament. As Jesus did not know the fact, he said that he was the only son of God.

**Jews don't believe in Jesus as their Savior**

Jews don't believe in Jesus as their Savior. Sightseeing to Israel for a pilgrimage, the Christians find there are no Churches in Israel. Those who have been to Israel ask the pastors and the theologians why they could not find a church in Israel, the home of Jesus.

But they cannot answer why there is no church there. The Jews know whose child Jesus is. They know Jesus' birthday is January 6th. Christianity deceives people in saying that Jesus' birthday is on December 25th and observe the day as Christmas. So the Jews laugh, despise Christians, and do not regard them as humans. Also the Jews in America do not regard Christians as humans, either.

Because they believe in Jesus, a bastard. They know Jesus is a bastard. Do they know that Jesus is the son of Pantella, a Roman soldier? As they know, they regard Christians as low fellows. As Korea is a primitive one, there are many Christians there. Because they are not enlightened, they don't know who Jesus really is, they believe in Jesus.

**The word of the Bible proves that Jesus is not the Savior**

Contemplating the word of the Bible minutely, there are precise words. According to Matthew 12:28, Jesus said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He confessed driving

demons by not the Holy Spirit but demon.

Also, in accordance with John 14:30, Jesus said, "for the king of this world is coming after me." Jesus indicated the king as the Savior. That is, he means the Savior comes after him.

**Jesus is not a prophet like Moses because he did not emit the dew**

Act 3:22-23 says, "For Moses said,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people; you must listen to everything he tells you.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Jesus spoke, "he is a prophet like Moses."

Jesus is not a prophet like Moses because he did not pour the dew, the heavenly manna, to his people. Only by emitting the manna like the dew, one can become a prophet like Moses. In order to be a prophet like Moses, one should pour the manna like the dew. Today, This man emits the Holy Dew Spirit like Moses did. The man who pours the manna like the dew is a prophet like Moses. We know Jesus is not a prophet like Moses.

**The Savior comes from Korea**

There is a saying that a prophet like Moses comes from Korea accordi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According to the Buddhist scripture, the Maitreya Buddha appears from a country where King Gyedoo rules. King Gyedoo is a king of Silla dynasty. Silla is Korea now. The Buddhist scripture says the Maitreya Buddha emerges from Korea.

Hosea14:5 tells,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will blossom like a lily." Israel is Hebrew meaning the Victor. God promised that he would become the Dew to Israel, the Victor that pours the dew will blossom like a lily. People do not know what a lily means. A lyric of a hymn says, "The Savior is a lily in a mountain valley, he is outstanding over all humans."

**The Savior emerges with a name meaning the Morning Star**

Also the Savior is the bright morning star. It means that the man who has a name of the Bright Star is the Savior. The man who is outstanding over all humans is the Savior. The man who can control winds and clouds and emits

the Holy Dew Spirit is the ultimated Savior. The lyric of the hymn says that the Savior is a lily and a man with a name with the bright morning star. This expression is not in the Bible, it is in the lyric in a hymn. The Savior is expressed as follows. The Victor who radiates the Holy Dew Spirit blossom like a lily.

Also, the morning star is a bright one. Revelation 2:26-28 says "To him who overcomes and doe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he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I will also give him the morning star."

God says, "He will give the morning star to the Victor." The morning star means the bright star. It means the man who has a name of the bright star is the Victor Savior. The Victor is the man who pours the Holy Dew Spirit, the Victor who emits the Holy Dew Spirit is the Savior according to Hosea 14:5.

But as Christians who believe the Bible do not know the fact, there is no way to find the Savior. Though the Savior appears and does the work of salvation, they do not know it.\*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n January.13th, 2001.

Translation: Angela Kim

지난 두 번의 글에 이어 도덕경 15장 약동섭천(若冬涉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정에서 물을 찾아 얼음 위를 헤매던 주인공이 얼음과 함께 녹아 계곡물에 던져진 순간 통나무가 되었고 이후 계곡과 하나가 되어가면서 흙탕물로 변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순간 인두검을 벗고 통나무가 되는 장면이 돈오(頓悟)요, 이후 점점 개체성을 잃어가면서 흙탕물로 변하는 과정을 점수(漸修)라 했습니다. 여기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단박에 깨친다.'는 선종(禪宗) 특유의 돈오(頓悟)에 대한 초기 기록은 혜능(慧能)의 육조단경『六祖壇經』 제7장 남문북점장(南頓北漸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이 수심결(修心訣)을 통해 '단박에 깨치고 다시 서서히 닦는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실천 후 정론으로 여겨지다가, 1981년 성철(性徹) 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란 저술을 통해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첫째로 논의들이 제기된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981년을 기점으로 왜 갑자기 돈오돈수가 다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제단 분들이라면 쉽게 짐작하시겠지요 바로 이기신 하나님의 등장, 이긴자의 완성과 그 시기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내 안의 하나님의 각성, 내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따라서 이기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1980년 이전까지는 깨달음, 돈오(頓悟) 또한 온전한 것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깨달음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내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점수(漸修), 더 닦아야 합니다. 해서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980년, 완성의 하나님, 이긴

자가 등장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마귀를 완전히 죽이고 온전한 돈오(頓悟), 완성의 깨달음이 등장했으니 더 닦을 것이 없습니다. 해서 '한 순간 닦는다'는 돈수(頓修)가 된 것입니다. 한 순간 온전히 깨닫고, 한순간 홀연히 닦을 뿐입니다. 밑에서 해와 이긴자가 "네가 완성자가 되었다."고 한 선언이 바로 진정한 돈오(頓悟)의 선언이며 나아가 "네가 정하면 정하여질 것이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라 하신 것이 완성된 돈수(頓修)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죄업까지 한 순간에 멸(滅)하는 온전한 돈수(頓修)의 등장입니다.

완성의 이기신 하나님의 출현 자체가 돈오돈수(頓悟頓修)입니다. 점수(漸修)가 필요한 건 마귀 욕을 부수고 나온 이기신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 시대의 얘기일 뿐입니다. 돈오돈수(頓悟頓修)는 성철 스님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완성의 하나님의 등장을 영적으로 감지한 그가 더 닦을 것이 없는 온전한 깨달음이 이 세상에 나왔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왜 이긴자가 등장한 80년을 기점으로 돈오돈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지는, 이긴자를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또한 이는 '말세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누가 18:8)는 구절과도 짝이 맞습니다. 말세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믿음 자체가 없다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엡2:8)라 했으니 말세에 등장하는 그 믿음, 인간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죄인 파우의 믿는 마음일 수 없습니다. 엄청난 자기당착, 자기모순입니다. 믿음은 그 자신이 구원자이며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등장하는 완성의 하나님의 신 자체입니다. 마귀세상을 끝낼 믿음과 마찬가지로 돈오(頓悟) 또한 마지막 때에야 등장하는

## 꿈에 대하여...〈9〉 부제: 도덕경과 돈오점수(頓悟漸修)

것이지요. 돈오(頓悟)도 믿음도 1980년 이후에야 비로소 존재합니다.

둘째, 돈오(頓悟)나 점수(漸修)는 궁극적으로는 수행 방법, 닦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마귀신의 등장과 소멸에 대한 얘기이며 영적 '존재'의 등장과 소멸에 관한 담론(談論)입니다.

인간 자체가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의 이중구조체입니다.

따라서 얘기 보를 찢고 나오는 아기처럼 순간 등장하는 하나님이 순간의 깨달음, 오(悟)로 묘사된 것이며, 반면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나라는 마귀는 부수고 쓸어 없애야 하는 존재이기에 닦을 수(修)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선 오(悟)는 파자(破子)로 볼 때 완성(口)의 구세주 하나님(五)이 내(吾)가 된 마음(心)이니 하나님 나, 자성(自性) 자체를 상징합니다. 오(悟)는 깨닫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깨달음을 자꾸 인간 나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인 양 나의 깨달음, 인간의 깨달음으로 환원시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인간 내가 짊어지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은 나를 단일한 존재라 여기는 착각, '나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단견(短見)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주체영이 단일한 나라는 이 착각이아말로 '나라는 의식'의 근거이며 마귀의 신이 내 무의식에 숨어 사주한 미망(迷妄)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주체영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마귀 신이 주장하는 마귀 '나'일 뿐, 하나님 '나' 또한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나',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 나', 최소한 둘입니다. 비유하자면 회색으로만 보이는 TV화면이 실은 흑과 백의 두 장면이 빠르게 반복되어 그리 보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엄연히 백과 흑, 두 색이지만 회색 하나의 색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소위 깨닫는다 할 때 마귀 나, 의식의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마귀 범 무지의 본체, 무지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깨달음'이 나를 제치고, 나라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를 꿰고 이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앎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해서 선승(禪僧)들도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할 때 본능적으로 '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모르는 나도 나요, 아는 나도 나입니다. 마귀도 나요 하나님도 나입니다. 해서 범 부중생들은 그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인 양 또다시 착각할 뿐입니다. 나는 단지 무지의 존재라는 것을 사무치도록 지적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지눌(知訥)이 말한 '단지불회 시즉견성(但知不會 是即見性)'입니다. 내가 단지 모르는 자, 무지의 존재, 즉 마귀라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신이 등장해 견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깨달음, 오(悟)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귀 욕을 꿰고 등장한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 자신의 각성입니다.

점수(漸修)의 수(修) 또한 궁극적으로는 오(悟)와 마찬가지로 '존재'입니다. 파자로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三)을 가두고 있는 이중의 인두검(丁)이니 수(修) 자체가 마귀 욕, 마귀 신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칠 복(支)이 얹혀있으니 '하느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욕을 쳐서 부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修)는 글자 자체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신의 존재이며 또한 그 마귀를 두들겨 부술 것에 대한 서사(敘事)입니다. 수(修) 또한 본질적으로는 닦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며 주체입니다. 닦아 없애야 할 나라는 마귀가 수(修)입니다.

오(悟)와 수(修)는 근본적으로는 존재이며, 주체이며 놈(놈)입니다.

이렇듯 오(悟) 수(修)를 '존재'의 등장과 소멸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돈수(頓修)나 점수(漸修)나 하는 둔점(頓點)의 문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일 수 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과 마귀신의 상황과 근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뿐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의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하면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에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있다.' 정도가 될 테지요. 이 말씀은 인간이 어찌어찌 해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의(奧義)를 알 수 없습니다. '만사지(萬事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悟)와 마찬가지로 만사지(萬事知) 또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사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아는 존재, 한울님 자신이 만사지(萬事知)입니다.

그리되면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에서 만사지(萬事知)가 주어, 식(食)은 동사, 일완(一碗)은 목적어가 되어 '한울

님이 밥 한 그릇을 먹는다.'로 풀립니다. '만사지(萬事知) 식일완(食一碗)'은 '한울님이 밥 한 그릇을 똑딱 비우시는' 장면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받을 먹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에 인간 나, 마귀 내가 날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 대신(代身) 드러주시게 되면, 거기에 맡김의 이치, 하나님이 마귀 나를 대신(代身)해서 '나'를 해 주시는 맡김의 도리가 구현되니, 밥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나도 하나님, 밥도 하나님입니다.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이 이천식천(以天食天)이며 돈오(頓悟)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代身)해 나를 해 주시는 맡김입니다.

돈오(頓悟)든 점수(漸修)든 만사지(萬事知)이든, 내가 닦고 내가 깨닫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돈오(頓悟)도 만사지(萬事知)도 믿음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의 등장이며 하나님이 주체가 된 하나님 스스로의 진행입니다. 인간 내가 무언가를 새로이 알게 되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자가 '모르는' 자를 꿰고 등장한 것뿐입니다. 앎의 주체가 나라고 여기는 한 무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지는 앎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줄 때 그 존재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아는 자 하나님이고, 모르는 자 마귀입니다. 빛이 어둠 될 리 없고, 어둠이 빛 될 리 없습니다.

아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알고, 모르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모릅니다.\*